

# 소버린, SK 최태원회장 공격 재개

## 7개월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청 ... 2005년 겨냥한 힘겨루기 전망

소버린자산운용이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을 통해 SK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공식 요청하며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SK의 최대 외국인 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더욱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기준을 SK의 정관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2005년 3월로 예정된 SK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 한차례 경영권 쟁탈전을 예고했다.

소버린은 10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사에 대해 형의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가 확정된 이사에게는 직분을 상실케 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7개월만에 주주총회를 요청한 소버린은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SK 이사회에 공적인 다짐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련의 근본적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버린은 2004년 6월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SK 이사회 대표자들을 만났으며 이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는 서면으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치 않았고 그나마 답변된 내용도 핵심을 회피해 둘러대는 내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버린자산운용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7개월 동안 소버린은 SK의 이사회에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며 “SK 이사회가 기업의 건강한 기능을 저해하는 핵심적 문제들을 다룰 능력과 진정한 의지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SK의 기업지배구조 변화는 순전히 일반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양만의 변화일 뿐이며 SK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배분을 최적화시키는 등의 핵심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경영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 대표는 이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SK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경영진의 윤리성과 능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며 “중대한 범죄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로 하여금 상장기업을 경영하고 공공의 자금을 관리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 주주들은 꼼꼼이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학저널 2004/10/26>